

목포, '교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총력

목포시가 민선 8기를 맞아 선진 교육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목포시는 17일 "교육 분야 지원 사업에 17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초·중·고 급식비에 131억600만원 등을 비롯해 교육기관 보조, 장학금 지원 사업 등에 37억3천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 현장의 반응이 좋으며 학생들에게 가장 각광받는 프로그램은 목포 역사·생태·민중·평화 체험 프로그램이다. 관내 초등학교 6학년은

대상으로 지역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삶터를 공감하는 수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대역사문화공간을 비롯해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유달산 생태 탐방,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 신항만 등을 찾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 방식으로 목포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살펴보면서 애郷심을 고취할 수 있다.

관내 16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목포 문화를 담은 자유학기제를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살려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는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한다. 또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운영해 지역 특색과 문화를 담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자유학기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지역 특화형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데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고등학교 대상으로는 지역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선택과 책임의 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재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을 통해 지역 고

등학교가 교육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한편, 미래교육 체제를 구현하고 교육의 공평성 기회를 제공하는데 힘쓰고 있다.

고등학교는 목포의 지역 특색과 교육 환경 특성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교학점제 지역 교육과정 모델 개발을 목표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5일 하당청소년문화센터에서 관내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대입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관내 수험생이 최적의 수시 대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1대1 맞춤형 입시

교육분야 170억원 투입 선진 교육도시 도약 미래형 인재 육성 특화 프로그램 지원 박차

컨설팅을 추진했다. 5명의 현직 대학 입학사정관의 심층 컨설팅을 진행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최신 대학 입학 정보를 제공했으며 대학 별 대입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면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했다.

시가 운영하는 목포장학재단은 고등학교 성적 우수 학생, 학업 성취도 향상 우수 학생, 예체능 우수 학생, 저소득 가정 성적 우수 대학생, 희망 장학금 중·고생 등을 선발·지원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민선 8기에는 장학사업 대상자를 더욱

확대해 지역 대학생에 대한 장학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자립 지원금을 비롯해 희망장학금 장학사업 대상자를 기존 저소득·다자녀·다문화·장애인·농어업인에서 새터민·한부모·조손가족·만학도 등으로까지 대상을 확대·지원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창조적인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해 특화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에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며 "학생·학부모·유관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하나된 교육공동체를 구성해 교육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기자



함평 '히카마' 수확 현장 최근 함평군 손봉면 김중진 농가에서 '멕시코감자'로 불리는 '히카마(안남)'수확이 한창이다. 아열대 뿌리채소인 '히카마'는 배처럼 아삭하고 단맛이 나며 생으로든 먹어도 맛있어 샐러드, 동치미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된다. <함평군 제공>

강진, 하멜 맥주 생산 국제 협력 박차 郡·네덜란드 호르름시 기술 제휴

강진군에서 네덜란드 수제맥주 방식을 도입한 '하멜 맥주'가 생산될 전망이다.

강진군은 17일 "하멜 맥주 생산을 위해 자매도시인 네덜란드 호르름시와의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증축 공사 중인 하멜촌 내에 네덜란드 수제 맥주 생산설비와 체점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호르름시 대표단은 최근 강진군을 방문해 네덜란드 맥주 업체의 생산 노하우에 대한 기술제휴를 맺었다. 맥아, 홉 등 맥주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직접 수입하는 방법 등 다양한 대책을 향후 깊이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단순한 맥주 제조 기술 이전이 아닌 강진군만의 특색을 더해 관내 보리, 쌀, 귀리 등을 활용한 수제 맥주 개발과 지역 축제 개최 시 연계해 판매하는 등 다양한 병행 하멜 맥주 제조·판매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에서 호르름시 대표단은 17세기 네덜란드 전통 선원 의상 4벌을 기증했고 의상을 전시할 하멜기념관을 방문했다. 그동안 호르름시는 17세기 네덜란드식 대표 등 하멜 당시 유물을 지속적으로 기증해 하멜 전시관 콘텐츠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에버트 하멜재단 대외협력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교류를 다시 재개하게 돼 기쁘다"며 "강진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하멜 맥주 생산·판매에 자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진원 군수는 "병역 하멜 맥주를 개발해 하멜촌의 풍차와 전라병영성이 어우러진 이국적인 맛과 정서를 느낄 수 있는 테마 관광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하멜 맥주 생산을 위한 기술·문화적 협력을 기대하며 17세기 전통의상 기증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강진=정영록기자

"주민밀착형 치안 구현하겠다"

정덕진 제85대 영광경찰서장 취임

정덕진(사진) 제85대 영광경찰서장이 지난 16일 청사 무령마루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신임 정덕진 서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섬세한 대응, 동료와 국민에 대한 소통과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직업과 화합하는 조직문화 개선과 함께

주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는 주민밀착형 치안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서장은 경찰청 지역경찰운영계장, 112운영계장, 여성대상범죄수사기획계장, 전남청 112지안종합상황실장 등을 역임했다. /영광=김동규기자



윤병태 나주시장, 환경 분야 현안 점검

위생매립장 방문 환경미화원 격려 애로사항 청취

윤병태 나주시장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 분야 현안 점검에 나섰다. 또 현장 곳곳에서 고생하는 환경미화원, 위생매립장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사진>

나주시는 17일 "윤병태 시장이 최근 환경미화원 대기실 3개소(중부·빛가람·영산포)를 방문해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구슬땀을 흘리는 현장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여름철 무더위와 악취, 코로나19 재확산 등 악조건에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고를 누비는 미화요원들에게 감사드린다"

며 "깨끗하고 건강한 나주를 만든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여름철 건강관리,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 시장은 "안전한 근로 환경을 위해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량 14대 구매 예산을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다"며 "환경미화원 결원 보충을 위한 10명 신규 인력을 채용 등으로 지속적인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방문에 이어, 공산면 위생매립장 현장을 찾은 윤 시장은 매립장과 재활용 선별장 시설의 전반적 운영 현황을 살폈다. /나주=정준환기자

무안군체육회, 회장 선거관리 규정 무시 '잡음'

선출 절차 생략...회장이 9개 읍·면 체육회장 직접 임명

보조금 부정 사용, 불공정 채용 문제로 논란이 된 무안군체육회가 이번엔 회장 선거 관리 규정을 무시한 채 9개 읍·면 체육회장을 임명해 잡음이 일고 있다.

무안군체육회는 9개 읍·면 체육회장을 회장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출 절차를 생략한 채 무안군체육회장이 임의로 9개 읍·면 체육회장을 임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남악을 포함하고 있는 삼함음체육회장은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타 읍·면과 달리 2명을 임명해 '자기 사람 챙기기'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위법하게 임명된 읍·면 체육회장들은

오는 12월 실시될 무안군체육회장 선거에 투표권까지 행사할 수 있어 불법 선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맡아오던 시·군 체육회장 자리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정치에서 분리시켜 체육인들의 자율성에 맡겨 선출하도록 민선화시켰으나 정작 체육회 내부에서는 규정에 의해 선출해야 할 읍·면 체육회장들을 무안군체육회장이 직접 임명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읍·면·동 체육회 조직 구성에도 잡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육회가 자율성을 빌미로 불투명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나 지역 체육 관계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무안군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 19 여건에서 선출 절차가 여의치 않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했다고 하는데 이는 핑계일 뿐"이라며 "명백한 위법사항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안군체육회는 지난해 전남도 정기 종합감사에서 3천400만원 상당의 환수 처분을 받고 올해 무안군 특정감사에서도 840만원 상당을 환수 처분받았다. 이와 함께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 사업에서도 업무 담당자들의 '셀프 채용' 논란 등이 불거지는 등 총체적 부실 운영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무안=김상호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